

관심 줄어드는 '광주 AI 사관학교'... 우수 인재 지원책 시급

5기 교육생 712명 지원해 경쟁률 '2.2대 1'... 1기 대비 반토막 높은 취업률·무료 교육 혜택 매력적... 추가 지원 대책 마련해야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요람인 '인공지능(AI) 사관학교' 교육생 모집에 전국 청년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다만 모집 경쟁률이 첫해였던 2020년 대비 반 토막이 나는 등 매년 낮아지는 추세여서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지원책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공지능(AI)사관학교 제 5기 교육생 330명 모집에 광주 491명, 수도권 105명, 그 외 지역 116명 등 전국에서 총 712명이 지원해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올해 제5기 교육생은 2차 모집까지 시행했지만,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이 갖춰진 광주에서 인공지능(AI) 현장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고, 생생형 인공지능(AI)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동향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평균 60%대의 높은 취업률을 도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1차 서류심사와 온라인 기초·심화과정 이수(320시간), 역량테스트, 심층 인터뷰 등 단계별 선발 절차를 거쳐 5월초 330명을 최종 선발한다.

5기 교육은 ▲인공지능(AI) 모델링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인공지능(AI) 플랫폼 및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기초·심화 과정을 포함해 인공지능(AI) 이론 및 실습 교육, 프로젝트 과정 등 단계별로 총 10개월 간 1300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분석', '맞춤형 챗봇을 구축하는 초거대언어모델(LLM) 활용' 등 최신 인공지능 기술동향에 맞춘 특화교육

을 새롭게 제공한다.

또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기술 습득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교과별 역량 강화학습, 글로벌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공, 창업 동아리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교육생 맞춤형 교육도 지원한다.

수강생이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을 영입해 ▲삼성전자-카카오 등 전문기업 ▲인공지능(AI) 창업기업 및 현지 개발자와 토크콘서트 ▲인공지능(AI)기업 브릿지데이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상담(멘토링)을 지원한다.

우수 수료자 4명에게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전시회인 '2025 CES'를 참관할 기회도 부여한다.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2020년 첫 모집 이후 4년

간 탄탄한 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통해 총 916명의 우수 인력을 배출했다. 1-3기 졸업생 중 64%가 취·창업에 성공했으며, 47기는 졸업 전 14명이 조기 취업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경쟁률 하락세는 해결 과제로 꼽힌다. 첫해였던 2020년 제1기가 5.8대 1을 기록한 이후 2021년 제2기 3.4대 1, 2022년 제3기 2.3대 1, 지난해 제4기 2.4대 1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하락세는 3기(2022년)부터 모집생이 180명에서 330명으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 분석도 있지만,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경쟁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공공기관 현장대화 강기정 광주시장이 8일 오전 광주도시공사 휴마루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장대화'에 참석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육아 특화형 주택 공급 추진

입주자 협동조합 구성해 주도적 참여... 2027년 입주 목표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공동 육아 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육아 중심 특화형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와 광주 도시공사는 8일 도시공사 휴마루에서 공공기관 현장 대화를 하고 두 기관 협업 사업인 사회주택 모델 개발·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주택은 완공 후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계획·시공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육아 중심 사회주택은 10~12가구 개별 주거 공간과 육아·커뮤니티 등 공동 시설을 갖추고 2027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을 비롯한 미래 차 국가산단, 에너지 밸리 일반산단, 어등산 관광단지, 의료특화 산단 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 경과도 공유했다.

어등산에 스타필드 등을 포함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에너지 밸리 '누구나 집' 건립 등으로 공공주택도 지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시공사는 시민들이 집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지역 대학 'RISE' 참여 이끈다

18개 일반·전문대 찾아가는 설명회... 내년 시행 앞 소통 강화

전남도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한 지역 대학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일 목포대학교를 시작으로 2주간 18개 일반·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전남 RISE사업 대학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이끌고 있는 대학 관계자와 교직원이다. 전남도 대학혁신과와 RISE추진단이 공동으로 직접 안내 대학 현장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계획 수립 초기부터 대학별 사업 수요조사를 해 대학의 의견을 듣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 소통·협력이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는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 구성원의 관심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앞으로 전남도와 대학 간 정책파트너십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는 기존 교육부의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RIS·LINC 3.0·LiFE·HiVE·지방대학성화 사업)을 통합하고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위임·이양함으로써 지자체 주도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지역 맞춤형 대학 지원체계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2023년 3월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된데 이어 업무를 전담할 대학혁신과와 RISE 추진단을 신설하고 5대 핵심 분야 15개 세부 프로젝트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설명회는 사업 기본계획 안내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대학의 의견이나 건의 사항은 내부 검토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응급 의료 비상 단계 격상 단계별 대응

중환자 병상 전환비 지원·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등

전남도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기능 축소에 따른 중증 환자 증가를 예상, 목포한국병원과 순천성가톨릭병원 등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의 특수성을 감안,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대신할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 2022년기준 전·과·조대 이용 중증 환자(월 270명) 중 10% 이상 이용 시 비상 부족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 단계를 ▲1단계 관심(현재) ▲2단계 주의(10% 증가) ▲3단계 경계(25% 증가)

▲4단계 심각(50% 증가)으로 나눠 환자 증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전남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모니터링 결과 경계 단계 돌입 시부터 대응 체계를 적용해 단계별 대응을 중환자 병상으로 기능 전환해 고난도 중증 환자 진료에 대처하기 위해 병상 전환 비용(1병상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장기로는 중환자 급증으로 동·서부 전 권역 중환자실 부족 시 병상 확충을 의료기관을 발굴해 중환자실 설치비용(1병상당 1억원)을 지원하기

로 했다. 또 경계 단계부터 지방의료원의 숙련 간호 인력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한시 파견하고, 응급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진료 격려수당을 지급하는 등 의료진 근무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축소에도 도민이 진료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두 달여간 비상진료 태세로 근무하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최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에 중환자실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집중식 환자감시장치 설치비용을 각 3억원씩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쿼!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쿼!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지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